

# 편집자의 동지애로 새로운 출판운동 편다

## 출판계 막후 전위부대 '서울편집인클럽'

출판계 막후 전위부대가 생겨났다. 지난해 봄 우연히 만난 세명의 중견 편집기자들이 모임 하나를 모의했다. 당시 들녘의 장익순 실장, 삶과꿈의 김진술 실장, 영언문화사의 맹한승 부장은 '현장 편집인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소문을 듣고 하나 둘씩 찾아온 '형제'들이 97년 1월 창립총회 때는 13명으로, 지금은 17명으로 불어났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엔 어김없이 이 전위부대들이 나타난다.

### 술자리 면접 통과하면 회원자격

회장 진성민(들녘카드 실장), 총무 맹한승(전 영언문화사 기획부장)씨를 비롯해 김진술(위드컴 기획이사) 장익순(들녘 기획실장) 민성원(번역가) 주연선(무당 기획실장) 안철환(소나무 기획실장) 이문수(디자인하우스 단행본과장) 이규원(일빛 기획실장) 이순화(실천문화사 편집부장) 위광삼(기문당 편집부장) 안희곤(전 고려원미디어 편집부장) 진현종(번역가) 오창준(삼성문화재단 문화사업실 과장) 조병철(중앙 M&B 기획출판팀 차장) 윤양미(한길사 편집차장) 최영미(두산동아 홍보담당 대리) 등이 전위부대의 맹장들이다. 한길사 주간을 지낸 문학평론가 황광수씨가 명예위원으로 조언한다. 모임은 항상 열려 있고, 더 많은 여성회원을 기다리는 중이다.

워낙 각 출판사들의 개성이 서로 달라 관심사가 엇갈릴 만도 하지만 이들을 묶고 있는 튼튼한 끈은 편집자로서의 동지애다. 이

### 회원간의 끈끈한 정이 있으니

###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질

### '틈'이 없다. 오히려 개성이

### 뚜렷한 타사의 기획방향에서

###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미 청춘의 방향기를 끝내고 평생을 '출판' 언저리에 남기로 결정한 삼십대의 탄탄한 인생관이 그 동지애의 바탕이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일단 회원들과의 술자리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인생이야기부터 출판관까지 서로 '통하면' 비로소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회원이 된다. 상반기를 결산한 7월엔 유명한 아버지곡으로 1박2일의 M.T를 가서 밤샘 토론으로 다시 한번 동반자적 애정을 확인했다.

이렇게 다져진 회원간의 끈끈한 정이 있으니 출판사마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질 '틈'이 없다. 오히려 개성이 뚜렷한 타사의 기획방향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각자 체험에 바탕을 둔 조언은 자사의 기획이나 편집에 귀중한 도움이 된다. 이미 그 결과가 책으로도 결실을 맺었다. 들녘의 기획이었던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이 진현종씨의 집필로 이어졌고, 맹한승씨가 쓰고 있는 《탈샐러리맨 귀농전략》은 무당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편집자들의 공동 관심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주제발표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엔 어김없이 맹장들이 모여 테마토론을 벌인다.

갖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도는 워낙 컸기에 첫 주제로 선정됐고, 2차 저작권문제나 기획출판 전략, '97 상반기 출판경향 분석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달엔 '전문도서의 탈전문화, 대중화 경향'의 테마가 기다리고 있다. "출판물의 선정성 논쟁, 어디까지인가" "표지디자인의 세계" 등 회원들이 돌아가며 발표할 연구 테마가 올 연말까지 잡혀 있다. 이런 토론의 자리가 있어 다른 모임들과는 달리 단순 친목을 넘어서는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달마다 공동관심사 토론

몇차례의 공식적인 모임 끝에 내린 결론은 좋은 책을 선정 소개하는 작업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 '서울편집

인클럽'의 이름으로 좋은 책,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맡기도 한다. 이 작업이 쌓이면 책으로도 묶을 예정이다. 클럽 출항 첫해의 가장 큰 사업은 회원지를 내는 일. 각 회원의 연구성과물을 묶는 일, 좋은 책의 서평집을 내는 일로 잡아두었다.

"출판계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자리이지요. 후배들에게는 출판지들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구요. 자신의 논리에 흔들리기 쉬운 경영자보다는 정신적인 맥락을 중시하는 편집자들의 모임이니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출판운동의 한 마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자생 친목모임도 많이 생겨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1년 동안 이 모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진성민(39) 회장의 바람이다. — 김지원 기자

## 호글96 · IBM 분판 전문 출력

- 4도·2도분판, 단도, 레이저프린트
- 호글96 및 도스버전, 코렐, 포토샵, MS워드, pagemaker, 혼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상담환영 (강종욱 실장)



삼화전산 sawh  
천리안 하이텔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8

### 이런 분을 기다립니다

- 호글96의 출력이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호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호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칼라인쇄를 하려는 분
- 한자 및 고어, 각주가 많은 책을 만드시는 분
- 소설책 편집에 하루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분